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결과 보고

2022. 10.



법 제 처

기획조정관실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순 서

I. 행사 개요	1
II. 개최 성과	3
III. 향후 계획	4

[붙임 1] 회의 프로그램

[붙임 2] 현장 사진

[붙임 3] 주요 언론보도 내용

I. 행사 개요

1 개최 배경

- 우리나라 법제발전의 경험 공유 및 아시아 각국 공통 현안에 대한 법제적 해결 방안, 대응 방안 모색
- 아시아 각국이 디지털 행정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함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아시아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발굴

2 일시 · 장소 및 참석자

- (일시) 2022. 9. 29 (목) 14:00 ~ 18:00
* 공동 주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국회의사당역 인근) / 온라인 생중계
- (참석자) 처장님 및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국내·외 연사

3 주제 및 개최 방식

- (주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
- (개최 방식)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 연사의 원활한 회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를 활용하고, 온라인(유튜브) 통해 국내·외 실시간 생중계*
* 국내 연사는 현장 참석, 해외 연사는 온라인 참석, 일반참석자는 온라인 생중계 시청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모습	
	
영상회의 장면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 화면

4 회의 구성

- (회의 구성) 개회식과 기조연설 및 세션별 발표, 종합토론으로 운영

구분	주요 내용
개회식	▷ 개회사 (이완규 법제처장) ▷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 국내축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 해외축사 (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대리)
기조연설	▷ 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제1세션	▷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① 대한민국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발표 * '입법지원시스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②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발표 * 태국, 대만
	③ 종합토론
제2세션	▷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①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 역량강화 및 교류협력 추진전략 발표
	②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인적 교류협력 방안 발표 * 인도네시아, 베트남
	② 종합토론

< 참고 > 지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

- ▶ 제1회('13): 법제교류, 현 주소와 나아갈 길
- ▶ 제2회('14):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IT 법제의 현황과 발전 방향
- ▶ 제3회('15):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도시개발 법제 정비 전략
- ▶ 제4회('16): ASEAN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정비 전략
- ▶ 제5회('17):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법제 연구-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 ▶ 제6회('18):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법제 정비 전략
- ▶ 제7회('19):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 제8회('20):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
- ▶ 제9회('21): 아시아 각 국의 법제 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II. 개최 성과

1 국정과제 등 범정부 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국제회의 개최

- 정례적 회의 개최를 통해 법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우수 법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글로벌 법제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 강화
- 데이터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제정보시스템을 주제로 아시아 법제기관들과 발전방향 논의
- 2030년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개회사,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아시아 각국의 지지와 관심 요청



2 온라인 생중계를 통한 참여자 확대

- 온라인 생중계,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를 진행하여 참여자 수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회의 참여자 수 '19년 350여명 → '20년 1,375여명 → '21년 1,415여명 → '22년 1,454여명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국내·외 시청자 수	
[KOR]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2022) 대한민국법제처 구독자 2.03만명 조회수 855회 스트리밍 시간: 1개월 전	[ENG] The 10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대한민국법제처 구독자 2.03만명 조회수 599회 스트리밍 시간: 1개월 전
국내 시청자 수	외국 시청자 수

③ 회의를 통해 제공한 정보에 대한 높은 만족도

- 회의를 통해 제공한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보에 대해 대부분의 참석자가 만족*



④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 (초청장) 우편 초청장(415부) 및 온라인 초청장(5,366명) 발송 및 전달
 - 주한 외국공관,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법제 기관*에 우편 초청장 발송·전달
- * 국외출장을 통해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및 법무인권부, 일본 내각법제국에 전달
- (언론) 신문 지면광고(5건), 처장님 기고문·인터뷰 추진 및 보도자료 배포
-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 개설, 카드뉴스·웹툰 제작, 각종 이벤트 추진

Ⅲ. 향후 계획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행사대행용역 발주 및 착수. '23. 상반기
- 제11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23. 하반기

붙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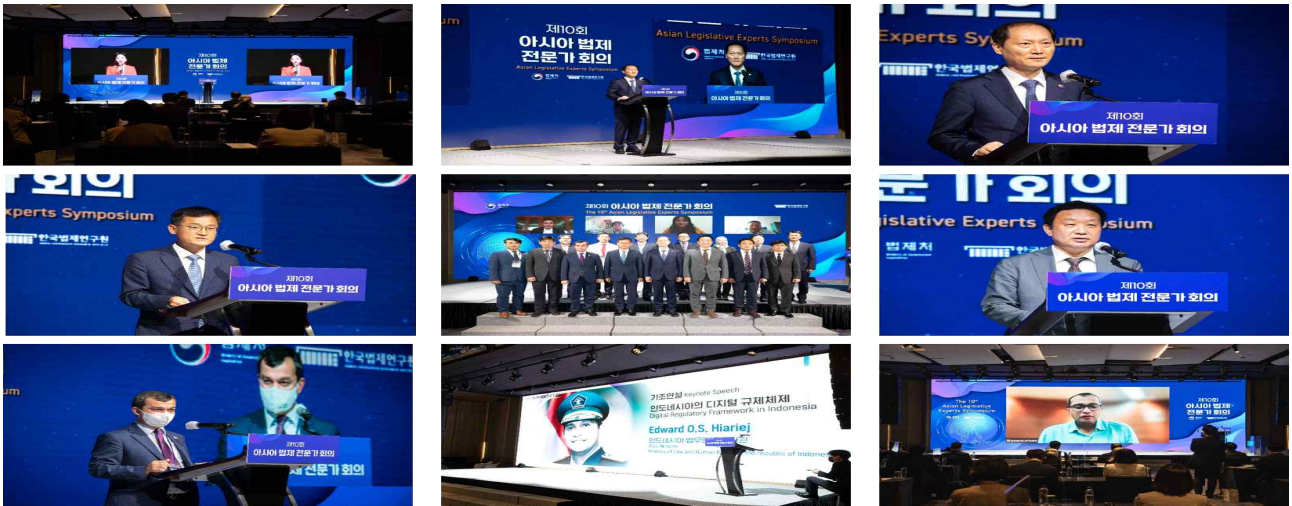
회의 프로그램

*** 음영 표시: 온라인 참여(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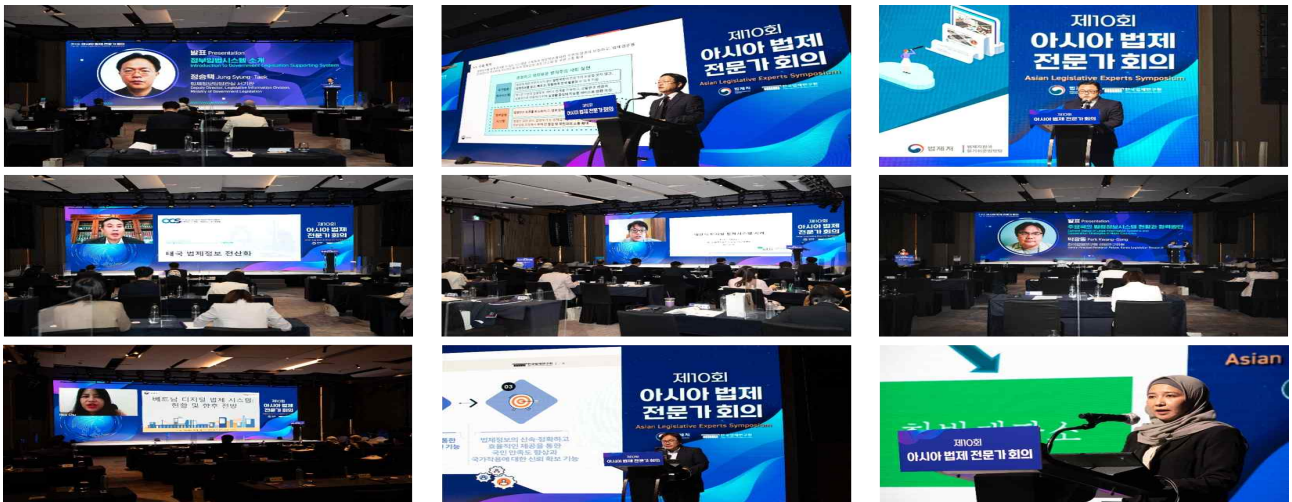
시 간	내 용	연 사
14:00 ~ 14:05 ('5)	개회사	처장님
14:05 ~ 14:10 ('5)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14:10 ~ 14:15 ('5)	국내 축사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14:15 ~ 14:20 ('5)	해 외 축사	Zokir Saidov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대리
14:20 ~ 14:40 ('20)	기조연설	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14:40 ~ 14:50 ('10)	기념촬영 및 휴식 ※법제처 홍보영상 및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 송출	
(세션1)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사회 :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14:50 ~ 15:05 ('15)	입법지원시스템	정승택 법제정보담당관실 서기관
15:05 ~ 15:20 ('15)	한눈법령	손문수 알기쉬운법령팀 팀장
15:20 ~ 15:35 ('15)	해 외연사 발표	Chintapun Dansubutra 태국 내각사무처 법개혁과장
15:35 ~ 15:50 ('15)	해 외연사 발표	Te Ying Yang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연구원
15:50 ~ 16:20 ('30)	종합토론	Sumya Sukhbaatar 몽골 법제연구원 부원장
		이동현 KOICA 사업전략기획실장
16:20 ~ 16:30 ('10)	휴 식 ※법제처 홍보영상 및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 송출	
(세션2)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사회 :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6:30 ~ 16:50 ('20)	발표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6:50 ~ 17:05 ('15)	해 외연사 발표	Petno Wulandari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거버넌스과장
17:05 ~ 17:20 ('15)	해 외연사 발표	Chu Thi Hoa 베트남 법무부 산하 법률과학연구소 과장
17:20 ~ 17:50 ('30)	종합토론	Emerson Banez 필리핀 국립대학교 법학교수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실장
17:50 ~ 18:00 ('10)	정리 및 폐회	

붙임 2 현장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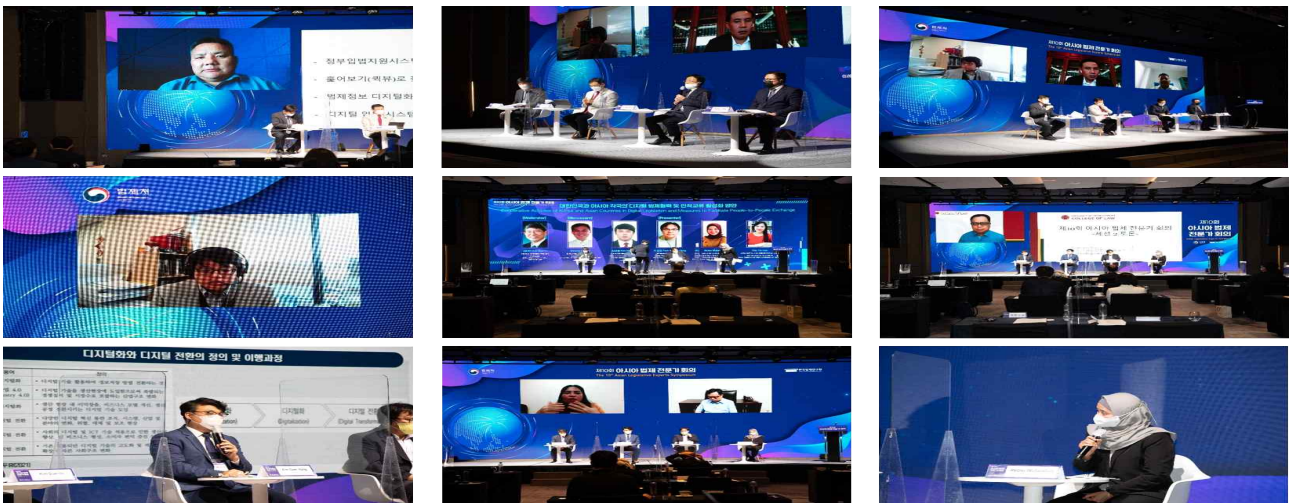
○ 개회식



○ 세션 발표



○ 세션 종합토론



붙임 3 주요 언론보도 내용

- 13개 언론사(방송사 1, 신문사 12)에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보도

연번	구분	언론사명	보도 일자	제목
1	방송	법률방송 (처장님 인터뷰)	9. 30.(금)	'유권해석 종결자' 이완규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할 것"
2		법률방송	9. 30.(금)	"법제처의 말은 정부의 권위 대변"... '취임 150일' 이완규 법제처장 만나다
3	신문	KoreaJoongAng Daily	9. 28.(수)	Sharing Korea's laws with Asian countries
4		뉴시스	9. 29.(목)	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대만·몽골 등 7개국 참석
5		동양일보	9. 29.(목)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
6		로이슈	9. 29.(목)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에 모여 ALES 개최
7		법률신문	9. 29.(목)	'디지털 시대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8		부산일보	9. 29.(목)	법제처, 아시아 7개국과 법제정보시스템 교류... 디지털 혁신 필요성 제시
9		연합뉴스	9. 29.(목)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10		연합뉴스	9. 29.(목)	개회사 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11		정보통신신문	9. 29.(목)	아시아 법제 전문가 모여 디지털 법제 시스템 논의
12		충청일보	9. 29.(목)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에 모여 ALES 개최
13		KoreaJoongAng Daily	9. 29.(목)	Legal systems are going online, ALES meeting learns
14		TheKoreaTimes	9. 29.(목)	Digital legal info system essential for democratic progress
15		TheKoreaHerald	9. 29.(목)	Democratizing legal information through technology
16		보안뉴스	9. 30.(금)	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 상세 보도 내용

- Korea JoongAng Daily(9.28. 수)

Korea JoongAng Daily Wednesday, September 28, 2022

Sharing Korea's laws with Asian countries

The phrases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transition from an aid recipient to a donor country," "IT powerhouse," and "numerous words representing Korean culture and starting with the letter K such as K-pop" are the expressions describing the proud Republic of Korea. Those expressions referring to remarkable economic growth and cultural development of Korea are not new anymore. The sweat and toil of countless people for the remarkable results cannot be conveyed with those short sentenc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results could not be achieved without policies setting the right direction and policies are based on "laws and systems."

The laws for suppor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R&D),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driven technological innovation from the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y to the success in launching the Nuri rocket. The laws for promoting various industries, such as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have raised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ies. And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and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have played a pivotal role in nurturing our culture and disseminating it to the world. That means "laws and systems" that can be referred to as a vessel to hold policies have served as a "conscience" of Korea's development and "companion" of its policies.

Our legislative experience accumulated with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has been benchmarked by many other countries. Uzbekistan and other Central Asian countries as well as Indonesia, Vietnam, and Myanmar that are major member countries of Asian firmly believe the secret of Korea's development lies in laws and systems and continuously request us to share the experience.

In order to meet the request, we have endeavored to facilitate legislative cooperation by signing 30 memoranda of understanding with 16 countries since 2006. In particular, despite the difficult situation to maintain legislative coop-

erat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Vietnam and Indonesia asked for information on Korea's legislative policies and legal information system. We introduced Korea's legislative policies to high-level public officials, including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of Vietnam and the Vice Minister of the Cabinet Secretariat of Indonesia, through video meetings that were held eight times in total between last and this year. We are witnessing great interest in Korea's legislation.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other Asian countries has been enhanced at the annual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ALES that is the Asia's leading symposium on legislation. The symposium has been held to respond to various pending issues Asia is facing such as urban development, natural disasters and safety, and infectious diseases and has contributed to mutual prosperity of Asian countries.

The "10th ALES"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of "Digital era -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Asian Country" on Sept. 29. According to a research report published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digital divide causes social and economic imbalance and results in inequality. In the digital era, Asian countries have strived to come up with various measure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mong citizens or economic agents. A legal information system established by using digital technologies provides an easier and more convenient access to legal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a good alternative to eliminate digital divide. In this sense,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is making efforts to create new values by sharing all useful data with the private sector and businesses and developing a "government as a platform." Therefore, this symposium is meaningful in terms of providing timely measures to respond to digital issues Asian countries are dealing with.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at contributed to Korea's ranking first place three times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is providing about 4.77 million pieces of legal information. And it is easily accessed and conveniently used by the public, with an average of 17.2 million searches per day. In addi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pursuing another innovation of establishing an "intelligent platform for legal information service," where people can find legal information just by using everyday words and questions without specialized knowledge. And the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System"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pens all the procedures of making laws to the public. As a result, the public can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nd their voices can be reflected.

I expect that we could strengthen Korea's status as a leader in the field of legislation in Asia by sharing our exemplary legal information system with other Asian countries at the symposium. Moreover, development measures for a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country, including Indonesia, Thailand, and Vietnam, will be discussed for mutual growth of Asian countries.

Albert Einstein once said, "The only source of knowledge is experience." Korea's experience of rapid economic growth and legislative development can be a valuable "knowledge resource" for many countries that aspire to achieve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opes that, beyond one-off or short-term aid, Korea's legislative knowledge and experience would be fully utilized in Asian countries and mutual development of Asian countries would be ensured. Even though immediate results may not be seen, thanks to these efforts, Asian countries will recognize Korea as a "genuine partner" and a shortcut to the "win-win cooperation" the Yoon administration is pursuing will be created.



Lee Wan-kyu
The author is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 뉴시스(9.29. 목)

NEWSIS 정치 > 정치일반

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대만·몽골 등 7개국 참석

등록 2022.09.29 17:25:47 | 수정 2022.09.29 17:28:43

기사내용 요약

이완규 법제처장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 통해 법제 경험 공유"



[서울=뉴시스]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사진=법제처 제공) 2022.09.29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법제처가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29일 오후 파인문드 엠베서에서 서울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융합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야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2030년 세계법집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진상화, 대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신화 필요성, 베트남에서는 입법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양일보(9.29. 목)

동양일보
HOME · 세종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

A 신서희 2022.09.29 20:33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 ALES 개최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처(처장 이원규)는 29일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이하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원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와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위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zzw2504@dynews.co.kr

- 로이슈(9.29. 목)

로이슈 기사 프린트하기 프린트하기

한국법제연구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에 모여 ALES 개최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 논의

기사입력 2022-09-29 16:50:39

단체사진 촬영중인 ALES 참석자들.(사진제공=한국법제연구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처(처장 이원규)는 9월 29일 오후 2시부터 헤어 문트 엠버서더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이하 ALES)를 개최했다.

ALES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원규 법제처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및 윤리인으로 참석한 에드워드 히아레즈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원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은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이뤄졌다.

제2세션은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와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위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z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률신문(9.29. 목)

법률신문

국회, 법제처, 감사원

'디지털 시대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법제연구원,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박선경 기자 spark@lawtimes.co.kr | 입력 : 2022-09-29 오후 6:34:12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서울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7개국의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부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이번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 한국은 입법지원시스템과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다. 태국은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 부산일보(9.29. 목)

BUSAN.com

법제처, 아시아 7개국과 법제정보시스템 교류...디지털 혁신 필요성 제시

박선경 기자 spark@busan.com

입력 : 2022-09-29 22:00:00



29일 서울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각국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모습. 법제처 제공

한국과 아시아 7개국이 모여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서로 법제 발전을 위해 협력방안을 찾는 회의가 개최됐다.

법제처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디지털 법제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며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해 각국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했으며, 프사로 시에도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청송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등 축사에서 행사와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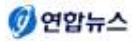
에드워드 히아리즈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부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그원사건 등을 통해 표현한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소개했다.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에서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왔으며 아시아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 연합뉴스(9.29.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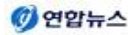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출고시간 | 2022-09-29 16:31



(서울=연합뉴스)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엠베서더서울에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가 열리고 있다. 2022.9.29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개회사 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출고시간 | 2022-09-29 16:31



(서울=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엠베서더서울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에서 개회사 하고 있다. 2022.9.29 [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정보통신신문(9.29. 목)

아시아 법제 전문가 모여 디지털 법제시스템 논의

김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9.29 16:55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ALES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한국법제연구원]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2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엠베서더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LES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해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에드워드 히아레스 인도네시아 법무장관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1에서는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현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세션2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 사회로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위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유덕 기자

- 충청일보(9.29. 목)

충청일보
HOME 충남 내포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 한자리에 모여 ALES 개최

주 역보성 기자 · 2022.09.29 17:19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의 성황리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 단체사진 및 공동주최 ALES 참석자들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는 29일 오후 2시부터 웨어러블 연바서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이하 ALES)를 개최했다.

ALES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한규 법제처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에드워드 하아레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한도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한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문 교수의 사회로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를 위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 대한,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정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구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내보=박보성기자

박보성 기자 bokb114@naver.com

- Korea JoongAng Daily(9.29. 수)

KOREA JOONGANG DAILY

2022년 09월 29일 (목)
사회

Legal systems are going online, ALES meeting learns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fifth from left in front row, and attendees of the 10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gather on stage for a commemorative photo at the Fairmont Ambassador Seoul in western Seoul on Thursday.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egislative experts from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gathered both virtually and in-person Thursday at an annual law forum hosted in Seoul to discuss the digitalization of legal systems.

The 10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co-host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was held online and offline at the Fairmont Ambassador Seoul in western Seoul under the theme of Digital Era -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Asian Country and Development Measures.

In this year's symposium, experts from seven Asian countries: Taiwan, Mongolia, Vietnam, Indonesia, Thailand, the Philippines and Korea that are beginning to operate digital legislative information systems were invited to explain them.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undertaken an establishment project of intelligent platform for legal information service to provide easier access to the legal information people are curious about and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a new industry of legal tech by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big data technologies,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Lee Wan-kyu said in opening remarks.

Lee introduced the ministry's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System, which shows online how laws are created, and can be accessed by anyone.

Legal information has been the exclusive preserve of governments and legal experts for a long time, Lee said.

However, he continued, a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Asian country established by using digital technologies [...] enhances the transparency of national policies. As such, a legal information system in the digital era facilitates a country's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donesia is the country that has the highest potential as a digital market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Edward O.S. Hanes, Vice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said in a speech.

Divided into two sessions, the forum first examined the digital legislation systems established in Asian countries.

Officials from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introduced the best practices of Korea's legal information system such as the Legislation Support System.

Jung Syung-Taek, deputy director at the ministry's legislative information division, illustrated the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System, Law Editor and Public Participation Legislation Center.

The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System is an online platform showing the drafting and examination of bill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romulgation.

The system ensures users can easily search for law information, guaranteeing the public's right to know, Jung said. And the system enables people to conveniently process any law-related businesses online, which streamlines the government legislative process and expands communication with the public.

Son Mun-su, head of the ministry's plain law division, presented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s project to provide "Plain Law" to the public. It is a service by the ministry's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at explains laws closely connected to people's lives with illustrations and photos.

The visual content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laws, Son said. We will continue to update the system, as well as expand the scope of laws in the system.

Officials from Thailand and Taiwan described the digitalization of their legislation systems.

In the second session, experts in digital legislation discuss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Since 2013,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has hosted ALES every year. Like last year, the 10th ALES was held with limited in-person attendance due to the ongoing pandemic and it was broadcast live via the ministry's YouTube channel.

- The Korea Times(9.29. 목)

Digital legal info system essential for democratic progress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Lee Wan-kyu delivers his opening remarks during the 10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t Fairmont Ambassador Seoul on Yeouido, Thursday. Courtesy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By Nam Hyun-woo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Lee Wan-kyu, stressed that government-run digitized legal information systems have become an essential tool in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during a symposium of Asian experts in legislation and governance, Thursday.

Lee made the remarks during the 10th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 held at Fairmont Ambassador Seoul on Yeouido. Korea's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o-hosted the event, which also saw overseas online panel participation and was accessed by viewers via a live stream.

"Legal information has been the exclusive preserve of governments and experts for a long time," Lee said during his opening remarks. "However, Asian countries have now set up legal information systems powered by digital technologies and these provide greater accessibility to the law,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national policies."

"In the digital era, a legal information system facilitates a country's innov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e said.

This year's ALES was held under the theme of "Digital Era — Legal Information System of Each Asian Country and Development Measures."

Lee said the Korean government is striving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create new values by connecting various types of data through digital platforms, which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public and new opportunities for innovation for businesses.

Also, the government is opening the entire lawmaking process transparently through the ministry's Government Legislation Support System, so that the public can better access legal information.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Zokir Saidov, Deputy Chief of Mission at the Uzbekistan Embassy to South Korea, said the symposium is playing a pivotal role in "strengthening legislative cooperation among Asian countries" and noted that one of the three main areas of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is in digitalization.

During the event, Edward O.S. Hiariej, Indonesia's Deputy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delivered his keynote speech, the Digital Regulatory Framework in Indonesia, while panels shared their views on the development of digitized legislation systems in Asian countries.

Started in 2013, ALES is an annual symposium aimed at sharing knowledge on the reciprocal development of the legislative system among Asian countries and exploring solutions for common challenges that the countries' legislative systems face.

So far, the symposium has been shedding new light on the importance of an advanced legislative system and its impact on various socioeconomic matters, such as ICT, transportation, urban planning, disasters and epidemic responses.

- The Korea Herald(9.29. 목)

The Korea Herald

2022년 09월 29일 (목)
종합

Democratizing legal information through technology

Seoul symposium gathers Asian legislative officials, experts



Lee Wan-kyu, South Korea's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delivers an address at the 10th annual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held Thursday at Fairmont Seoul in Yeouido.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egislative officials and experts from eight Asian countries gathered in Seoul on Thursday to discuss advances and challenges in legislation in times of digital technology.

Speaking at the annual 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South Korean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Lee Wan-kyu said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technologies brought forward a new era of legal tech industry, which is expected to make legislative process more democratic.

For so long, access to legal information used to be the exclusive preserve of governments and legal experts. But the advent of technology helps make that information more transparent and easily accessible to the people, he said in an address.

Legislation is yet another domain where digital technology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said Hwang Jong-Sung, the president of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Transparency is quintessential to the rule of law, and I think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digital technology has helped achieved that transparency on a greater level, he said.

Kim Kye-Hong, the president of th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aid the symposium took place as Asian countries are beginning to operate digital legislative systems.

South Korea has built digital systems to manage its laws and law information, with the use of technology, the country is seeking to further improve its legislative capacity, he said.

South Korea, which leads in the United Nations E-Government Development Index, began digitizing its legislative procedure more than 20 years ago, according to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ry.

The ministry's legislation editing software, introduced in 2018, utilizes a database that contains policies and legislative plans across government ministries and institutions as well as past legislations.

The ministry's plain law division runs a website designed to provide an open and convenient access to legal information and social media services that inform subscribers of updates on legislations.

But despite the efforts, the majority of South Koreans say laws and legislations are hard to understand. In the ministry's 2020 survey, 89.1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ey have experienced difficulties understanding laws.

The challenge exists in reaching out to younger generations, especially, who surveys show respond better to visual information rather than texts, said the head of the ministry's plain law division, Son Mun-Su.

Lee, the government legislation minister, said, Over the last nine events, experts gathered to discuss legislative challenges and ways to tackle them in various areas ranging from land and transport to natural disaster safety to public health.

He went on, The symposium hopes to serve as a medium for enhancing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legislative organizations of Asia countries.

By Kim Arin (arin@heraldcorp.com)

- 법률방송(9.30. 목)

법률방송 뉴스

HCAE > 오지나연 > 호연미클

[인터뷰] '유권해석 종결자' 이완규 법제처장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할 것"

김혜연 기자 | 2022.09.30 15:30



[법률방송뉴스]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낸 국제적 행사로, '디지털 시대'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법률방송 취재진이 그 현장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취재: 석대성, 김혜연 / 영상취재: 안도윤 / 자막: 김현진)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연 기자

- 보안뉴스(9.30. 금)

법제처, 아시아 6개국과 디지털 시대의 법제시스템 발전 방안 논의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 개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법제처는 지난 29일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ALES)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대만,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의 디지털 법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병행해 진행했고 유튜브 브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제정보시스템도 그 노력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제처는 아시아 법제 네트워크를 통해 법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각국의 상생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고, 2030년 세계법원회가 부산에서 열릴 수 있도록 각국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환영사에서 회의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조키르 사이도브 우즈베키스탄 대사 대리, 합충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이 축사에서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기원했다.

에드워드 히아리즈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잠재력이 높은 디지털 시장"이라며,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회의는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대한민국의 입법지원시스템과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서비스 사례를 공유했고 태국에서는 규제 개선과 민간 참여를 위한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관리하는 법령정보시스템 현황을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5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태국, 필리핀)의 법제정보시스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제안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입법 절차의 전산화 필요성을, 베트남에서는 입법 과정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을 발표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3년부터 아시아 국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매년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아시아의 공동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법률방송(9.30. 목)

법률방송 뉴스

HOME > LAW포커스 > LAW포커스 현장

"법제처의 말은 정부의 권위 대변"... '취임 150일' 이완규 법제처장 만나다

김혜인 기자 | © 승인 2022.09.30 17:50



[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영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 족시 및 건이나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은 5200건에 이르며, 관련 법령정보는 470만건이나 됩니다.

이같은 방대한 정보를 한 데 묶어 국민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법제처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법제 행정 모범국가에 대내외적 관심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유권해석'과 '법령정바라는 법제처 역할이 정부 위상을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임 150일을 바라보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김혜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이완규 법제처장]

"빠르게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념에 따라 법제처장으로서 헌법을 먼저 생각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법제처의 행보는 더욱 부각됐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관 신성, 검찰수사권 완전복합, 그리고 수사권 원상복구를 골자로 한 시행령 문제까지.

정치권 임장 차가 국명했던 시기, 어수선한 실정을 바로잡으며 '유권해석'이라는 본연 임무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렇게 정치의 사법화를 정리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외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처는 아시아를 포함한 16개 국가와 30건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법제와 시스템을 아시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우리의 우수한 법제정보시스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국가는 우리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주목을 받는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코로나도 막지 못한 대한민국 법제처의 선진기술 전수 행사는 어느덧 열 번째를 맞았고,

올해 열린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시대에 맞게 디지털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제정보의 관리 및 공유와 개방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꾸준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법제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더 발전시켜 빅데이터에 기반한 법령정보 지식 베이스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일상용어나 질문으로 법령을 찾을 수 있는 '지능형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법제처의 우수한 법제 시스템은 이를 도입한 국가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에도 역할을 한다는 평가입니다.

법제 수준이 비슷해지면 경제 교류도 원만해지는데, 국내 기업은 한국과 유사한 법제 환경에서 안정적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처장은 법제기술 고도화를 재임 중 목표로 삼으며,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스템 혁신의 실마리를 찾겠다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법령의 홍수 속에서 국민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자 법제처장으로서 처음 받게 되는 국정감사만 만큼 법제처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살피고 점검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법제처의 말은 정부의 권위를 대변한다'

퇴임 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 기억되고 싶다는 이완규 법제처장.

'하지만, 강한 거인' 법제처와 이완규 처장의 행보가 어떤 역사를 기록할지 관심을 모읍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인 기자